



제니스, 새롭게 단장한 상하이 부티크와 파리 몽 마르세 부티크에서 특별한 두 가지 제니스 아이콘 컬렉션을 선보이다

제니스는 지속적으로 기존 부티크를 단장하고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니스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구현합니다. 재단장을 거친 긴자 부티크 오픈에 이어, 제니스는 새롭게 단장한 상하이 및 파리 부티크에서 고객을 맞이하며 제니스 브랜드의 세계관을 소개하고 시계 제품과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방문객들은 부티크별로 서로 다른 빈티지 워치 제품 및 테마로 구성된 제니스 아이콘 테마 캡슐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난징 웨스트 로드에서 오픈한 제니스 상하이 플래그십 부티크는 중국의 시계 애호가와 제니스 팬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니스는 새로운 몰입형 부티크 컨셉을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스위스 최초이자 가장 혁신적인 통합 매뉴팩처에 관한 다양한 스토리를 전합니다.

제니스 상하이 플래그십 부티크 외부 전면은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며, 역광을 배경으로 1969년부터 한때 제니스의 로고로 활용되었던 4 개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스타 장식과 문자 "Z"가 서로 얽힌 디자인을 드러냅니다. 로고 주위에 자리 잡은 스타 장식은 불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연상시킵니다. 부티크에 들어서면 따뜻한 뉴트럴 톤의 컬러가 방문객을 가장 먼저 반기고, 중앙의 블루 톤 장식은 바닥과 천장을 비롯하여 설립 초기부터 제니스 스토리의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조명까지 이어지면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방문객들은 리미티드 에디션과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포함한 다양한 시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파리의 부티크 2 곳에 마련된 "스토리 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제니스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바 주변에 배치된 다양한 오브제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바 끝에 위치한 스크린에서는 영상이 재생되면서 각 오브제가 상징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제니스의 과거와 현재를 빛낸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 영감을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컬러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통해 제니스 브랜드의 네 가지 주요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쇼핑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포근한 VIP 룸에서 더욱 편안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하이 플래그십 부티크는 제니스 아이콘 테마 캡슐 컬렉션을 갖춘 두 번째 부티크이며, "제니스 아이콘 - 1 막(ACT 1)"이라는 이름과 함께 1969년부터 1972년에 출시된 스틸 소재의 초기 엘 프리메로의 주요 레퍼런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파리 몽 마르세 부티크에서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니스 아이콘을 최초로 선보이며, 부티크의 캡슐 컬렉션에서는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 제니스 제품에 영감을 불어넣은 역사적인 레퍼런스를 선보입니다. "제니스 아이콘 -



기원(GENESIS) – 크로노마스터 스포츠”라는 타이틀로 선보이는 캡슐 컬렉션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디자인의 핵심 요소에 아이디어를 준 과거의 상징적인 모델을 선보입니다.

제니스 아이콘 – 1 막(ACT I) @ 상하이 부티크

A384

A384 는 1969 년 신문 기사와 최초의 엘 프리메로 브로셔 커버에 등장하여 엘 프리메로의 얼굴로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4 개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제니스의 스타 로고 장식과 “판다” 다이얼을 갖춘 “스퀘어 배럴” 케이스로 더욱 특별한 매력을 구현했습니다.

A385

A385 는 엘 프리메로 칼리버와 함께 출시된 세 가지의 오리지널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 중 하나이며, 제니스가 1969 년에 광고와 사진 촬영을 위해 선택한 모델입니다. 당시로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스모키 브라운 컬러” 그라데이션 다이얼과 4 개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제니스의 스타 로고 장식이 새겨진 “스퀘어 배럴” 케이스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A386

제니스의 시그니처 크로노마스터 라인의 템플릿이라 할 수 있는 A386 은 1969 년 출시되었으며, 최초로 엘 프리메로를 탑재한 모델로 클래식한 라운드 케이스와 직선형 러그를 선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례 없는 삼색 크로노그래프 카운터와 소수 스케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엘 프리메로 칼리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타임피스이자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A3818

맨프레드 로셀러(Manfred Rössler)의 저서 “제니스: 1865 년 설립된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Zenith: Swiss Watch Manufacture Since 1865)”의 커버를 장식하며 “커버 걸”이라는 애칭을 얻은 A3818 은 1971 년 출시되었으며, “피라미드 트랙” 분수식 스케일을 선보이는 세로로 새틴 브러싱 처리된 산화 블루 다이얼이 돋보입니다. A3818 은 총 1,000 피스만이 제작되었습니다.

제니스 아이콘 – 기원(GENESIS) –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 파리 부티크

A277

엘 프리메로에 1 년 앞서 출시된 크로노그래프인 A277 은 1968 년부터 1970 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리버스 판다” 다이얼에는 도트 마커와 바턴 마커가 돋보이는 블랙 컬러의 회전 베젤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디테일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의 인그레이빙된 블랙 세라믹 베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A386



제니스 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 중에서도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로 손꼽히는 A386 은 1969 년에 출시되었으며, 삼색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된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로 크로노마스터 스포츠를 비롯한 크로노마스터 제품 라인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엘 프리메로 “드 루카”

1988 년부터 1996 까지 제작된 엘 프리메로 “드 루카” 라인은 다양한 다이얼 구성을 선보이며 몇 년간 여러 레퍼런스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는 드 루카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나 새틴 브러싱 처리한 사이드 링크 및 폴리싱 처리한 중앙 링크를 비롯한 3 가지 링크로 구성된 스틸 브레이슬릿에 장착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형태 및 마감 면에서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의 메탈 브레이슬릿에 고스란히 적용되었습니다.